

2016학년도 수능대비

인터넷수능 A(이과)

현대시
변형 문제

 지인국어교육연구소

‘알고 있는 것’이 ‘알게 하는 것’에 이바지해야 한다.

‘잘 했다’보다는 ‘잘 하고 있다’를,

‘잘 하고 있다’보다는 ‘잘 할 수 있다’를 더 중시한다.

‘맞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눈’으로 문제를 풀거나 ‘머리’로 해결하기보다는 ‘생각’으로 풀어야 한다.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집중력’을 발휘하여 ‘핵심’을 짚어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없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차이보다는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수많은 관계 그리고 수많은 시공으로 열려 있는 관계가 바로 관계망입니다. 그 관계망을 알아야 합니다.

CONTENTS

e+PLUS 인수A 현대시

인터넷수능A 현대시 문제

현대시 A-1 <김영랑, '내 마음 아실 이'>	3
현대시 A-2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8
현대시 A-3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4
현대시 A-4 <이육사, '광야'>	18
현대시 A-5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22
현대시 A-6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26
현대시 A-7 <김수영, '파발 가에서'>	30
현대시 A-8 <박재삼, '고향 소식'>	34
현대시 A-9 <고은, '성묘'>	38
현대시 A-10 <이성부, '봄'>	42
현대시 A-11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48
현대시 A-12 <강은교, '일어서라 풀아'>	52
현대시 A-13 <오세영, '등산'>	56
현대시 A-14 <김광규, '대장간의 유흥'>	60

정답 및 해설	64
---------	----

15-인수 A	
문 학	현대시 A-1 <김영랑, '내 마음 아실 이' >

2003학년도 수능 김영랑 '내 마음 아실 이', 2005학년도 6모 김영랑 '독을 차고',
2010학년도 6모 김영랑 '거문고', 2015학년도 9모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나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림다
내 혼자 마음 나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1. 이 시에 드러난 갈등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절한 소망과 성취에 대한 회의
- ② 만남의 기쁨과 이별에 대한 불안
- ③ 잘못의 은폐와 탄로에 대한 걱정
- ④ 진실의 왜곡과 탄압에 대한 공포
- ⑤ 현재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근심

2.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 ① 내 마음 속 사랑을 빨리 전하고 싶다.
- ② 내 마음을 전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 ③ 내 마음을 알아 줄 이가 없어서 안타깝다.

- ④ 임을 아직 만날 상황이 안 되어 답답할 뿐이다.
- ⑤ 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계속 그리움을 간직하겠다.

3. 이 시에 사용된 주된 표현 방식은?

- ① 심정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② 표현하려는 내용을 정반대로 표현하였다.
- ③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구사하였다.
- ④ 질문의 형식을 써서 표현하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 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2003학년도 수능 기출

4. 이 시의 화자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내 마음을 나 자신도 모르겠다.
- ② 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 ③ 내 마음을 알아 줄 사람이 어디에도 없다.
- ④ 꿈 속에서나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 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5. 이 시의 음악적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미진: 이 시는 음성 상징어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어.
- ② 승현: 이 시는 유성음의 사용으로 시어를 서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 ③ 효은: ‘내’의 두운, ‘이’, ‘은’의 각운을 사용하여 운율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어.
- ④ 지은: 시어들이 부드러운 낭독에 알맞은 시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 ⑤ 현진: 시적 허용은 입에 대한 강한 의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6. 이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여 <보기>에 적절한 내용을 가장 잘 연결한 것은?

내 마음 - 1연: 임의 존재에 대한 가정
- (a)
2연: 임에게 바칠 내 마음
- (b)
3연: 임의 존재에 대한 회의
- (c)
4연: 임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
- (d)

- | | | | |
|--------|------------|--------|--------|
| ① a 가정 | ② b 확인, 대답 | ③ c 물음 | ④ d 대답 |
| ⑤ a 강조 | ⑥ b 확인, 대답 | ⑦ c 물음 | ⑧ d 물음 |
| ⑨ a 가정 | ⑩ b 대답 | ⑪ c 물음 | ⑫ d 대답 |
| ⑬ a 강조 | ⑭ b 확인, 대답 | ⑮ c 강조 | ⑯ d 대답 |
| ⑰ a 물음 | ⑱ b 확인, 대답 | ⑲ c 물음 | ⑳ d 대답 |

(가)

나는 a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흠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나)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림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b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

(다)
 우리가 ㉠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 **벌써 솟아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나)에는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② (가), (다)에는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 ③ (나), (다)에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의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신념을 그리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대조적인 이미지로 이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8. <보기>는 ‘원형적 심상’을 설명하는 상징 사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보 기〉

- 작은 배 :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수단. 부활과 재생의 요람.
- 불 : 수직적. 상승의 에너지. 공격적인 남성. 인간의 생명. 사랑. 육체의 파괴와 소멸. 정화와 재생.
- 물 : 수평적. 하강. 모성 혹은 여성. 죽음. 정화와 재생. 순환. 시간의 흐름.
- 나무 : 인간의 형상. 인간의 상승 욕구. 초월에의 의지. 크고 넉넉한 인격.
- 하늘 : 공간의 영원성. 고고한 정신. 신(神). 순결. 무(無). 부재(不在).

- ① ㉠ 나룻배 : ‘행인’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② ㉡ 불 : 삶을 지탱해 주는 상승의 에너지로서 사랑의 열정을 환기한다.
- ③ ㉢ 물 : ‘죽은 나무뿌리를 적’신다는 것에서 보듯이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 ④ ㉣ 나무 : ‘우리’가 함께 선다는 표현으로 보아 초월과 상승의 욕구를 가진 인간의 형상으로 읽어 낼 수 있다.
- ⑤ ㉣ 하늘 : ‘불’로 상징되는 모든 인간적 고뇌가 승화된 정신적 경지를 표상한다.

9. (가) 시의 소통 구조와 표현에 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나룻배’에서 보듯이 이 시의 화자는 ‘나’야. 이럴 경우 ‘나’는 시인의 분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
- ②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청자도 비교적 명확해. ‘당신은 행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현재 화자 앞에 청자가 없으니까 이 시는 독백이라고 봐야 할 거야.

- ③ 같은 구절을 시의 앞뒤에 배치하는 수미상응의 방법을 써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고 있어.
- ④ 2연은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희생이 무조건적임을 드러내려고 한 것 같아.
- ⑤ 3연은 ‘나’의 무조건적 희생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에게 무관심하지만, ‘나’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끝내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지.

10. (나)의 [A]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아! 그림자
내 혼자 마음을 나처럼 아실 분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이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련만
불빛에 연기인 듯 희미한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라 내 혼자 마음은

- ① 구체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 ②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 ③ 리듬감을 살려 내밀하고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 ④ 문법의 틀을 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 ⑤ 시적 진술을 좀 더 분명히 하여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11. (다)의 ㉠과 시적 정조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회개, 또는 고요하게, /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

- ② 눈이 많이 와서/ 산엿새가 벌로 내려 맥이고/ 눈 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 백석, 국수 -

- ③ 바야흐로 해발 육천 척 우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 정지용, 백록담 -

- ④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 김종삼, 묵화(墨畵) -

- ⑤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 이성부, 봄 -

15-인수 A	
문 학	현대시 A-2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2004학년도 9모 '흰 바람벽이 있어', 2004학년도 수능 '고향', 2009학년도 6모 '여승',
2011학년도 9모 '적막강산', 2014학년도 6모 '서행시초'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W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즈 켄'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A]

[B]

*바람벽: 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둘레의 벽.
*감주: 쌀밥에 엿기름을 부어 삭혀서 끓인 음식. 식혜.
*호젓한: 인적이 없어 쓸쓸한 느낌이 들 만큼 고요한.
*울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함. 또는 그런 힘.

*때글은: 오래도록 땀과 때에 전.
*개포: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 해제 : 시적 화자는 흰 바람벽에 투사된 내면의 풍경을 통해 자신의 지난날을 성찰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좁다란 방’은 자신의 거처가 좁고 누추한 상태를 나타내고 ‘흰 바람벽’은 그렇게 누추한 살림 속에서도 내면의 정결성은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마치 극장의 영상막과도 같은 흰 바람벽에 화자의 내면에 명멸하는 여러 가지 추억과 회한의 장면들이 투사된다. 화자는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고 하여 자신의 삶이 숙명적으로 외로움을 벗어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희미한 심오 축 전등’, ‘지치운 불빛’, ‘때에 그을린 ‘낡은 무명 셔츠’, ‘어두운 그림자’ 등은 화자의 가난한 생활상과 우울하고 외로운 내면을 다각적으로 조명해 낸다. 그래서 화자는 달고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는 지극히 소박한 희망을 피력한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과는 달리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영상막 같은 흰 바람벽에는 쓸쓸하고 애처로운 삶의 단면이 투영된다. ‘가난한 늙은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다음에는 자신의 마음에 담아 둔 생각들이 글자의 형상으로 바람벽에 투영된다고 말하고 있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운명적 자존 의식은 가혹한 삶 속에서 그를 지켜 주고 위로하는 동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주제 : 고단한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안과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 구성
 - 1행~6행 : 흰 바람벽에 비친 쓸쓸하고 애처로운 삶의 단면
 - 7행~16행 : 흰 바람벽에 비친 그리운 사람들
 - 17행~23행 : 흰 바람벽에 비친 화자의 내면 인식
 - 24행~29행 : 자기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극복 의지

12.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흰 바람벽이 있어>는 만주로 이주했던 백석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창작된 시로 백석의 다른 시들에서처럼 흰색의 이미지를 통해 쓸쓸함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바람벽을 영화의 스크린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바람벽에 투사되는 글자들은 화자의 불우한 삶을 위로하고 있다. 또한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들을 열거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좁다란 방’, ‘지치운 불빛’, ‘낡은 무명 셔츠’는 창작 당시의 어려운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② ‘바람벽’의 흰색의 이미지는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삶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어.
- ③ ‘바람벽’은 스크린처럼 활용되어 화자의 삶의 일면과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 ④ ‘글자들’을 보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불우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 ⑤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프랑스식 잠’과 ‘도연명’ 등을 통해 가난하지만 고결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면적 지향을 보여 주고 있어.

13. 이 시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을 고려할 때, ㉠에 담긴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는?

보기

이 시는 1941년 4월, <문장>에 실렸던 작품이다. 이때는 백석이 서울에서 동거 생활을 했던 자야와 헤어진 후, 만주에 가서 어려운 떠돌이 생활을 할 때였다.

- ① 자조(自嘲)한다.
- ② 절망(絶望)한다.
- ③ 기대(期待)한다.
- ④ 고민(苦悶)한다.
- ⑤ 용서(容恕)한다.

14.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어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각한다.
- ③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출한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 ⑤ 도치의 구문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